

이 책의 차례

01. 정지용, 「춘설(春雪)」	002
02. 김현승, 「눈물」	008
03. 김승희, 「배꼽을 위한 연가 5」	014
04. 김소월, 「님의 노래」	018
05. 한용운, 「수(繡)의 비밀」	024
06. 박목월, 「윤사월」	030
07. 윤동주, 「자화상」	036
08.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042
09.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048
10. 이육사, 「꽃」	054
11.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060
12.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066
13. 신석정, 「꽃덤불」	072
14. 김수영, 「사령(死靈)」	078
15. 정호승,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084
16.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090
17. 기형도, 「홀린 사람」	096
18. 박남수, 「종소리」	102
19. 황인숙,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106
20. 황동규, 「풍장(風葬) 1」	112
21. 유하, 「빠빠용 - 영화 사회학」	118
22. 신경림,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124
23. 고재중, 「들길에서 마을로」	128
24.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134
25. 송수권, 「등꽃 아래서」	140
26. 서정주, 「무등을 보며」	146
27. 김광규, 「상행」	152
28. 박봉우, 「나비와 철조망」	158
29. 구상, 「초토의 시 8 - 적군 묘지 앞에서」	162
30. 이용악, 「오랑캐꽃」	168
31. 김용택, 「섬진강 1」	174
32. 오장환, 「성탄제」	180
33. 김선우, 「깨끗한 식사」	188

작품 특징

춘설을 경험한 화자가 봄의 생명력을 느끼며 감각적으로 묘사한 작품.

핵심 키워드!

- ① **주제:** 봄눈[春雪]과 봄의 생명력
- ② **화자의 상황과 정서:** 화자는 이른 봄에 내리는 눈을 보며 봄의 생명력을 느끼고 있다.
- ③ **특징**
 - ①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예) 섯똥! 아아
 - ★② 감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 시이다.
 - ★③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예) 먼 산이 이마에 차라.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 워라.)
 - ④ 이중적인 감정이 나타나 있다. (예) 핫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⑤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다. (예) 우수절(雨水節), 초하루 아침)
 - ★⑥ 특정 어미가 반복되어 나타나 있다. (예) 차라. 향기로 워라. 설어라. 싶어라.)
 - ⑦ 외부의 정경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다. (연계 교재)
 - ⑧ 색채감이 나타난 시어를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연계 교재)
 - ⑨ 시각적인 형상의 이미지를 촉각적 감각으로 전이시켜 표현하고 있다. (연계 교재)
 - ⑩ 감탄형 서술어를 구사하여 풍경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계 교재)
- ④ **중요 소재:** 눈/핫웃(겨울), 새순/고기(봄), 도로 춥고 싶어라.(겨울이 지나감에 대한 아쉬움, 봄이 오는 기대감)

문 열자 섯똥!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옴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 워라.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핫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

* 우수절: 입춘과 경칩 사이의 절기인 우수로, '봄비로 물기운이 가득한 때'라는 뜻임. 양력 2월 18일경.
* 옹송그리고: 춥거나 두려워 몸을 궁상맞게 몹시 움츠려 작게 하고.
* 옴짓 아니 기던: 움직이지 않던.
* 핫웃: 안에 숨을 두어 지은 겨울웃.



KEYWORD

춘설[春雪], 생동감, 생명력, 아쉬움, 이미지

Quiz!

정답과 해설 00P

- 01.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계절감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0 X
- 02. 영탄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 X
- 03. 대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0 X
- 04. 색채의 대비를 통해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0 X
- 05.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에 입체감을 더하고 있다. 0 X
- 06.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 X
- 07.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라는 것은 봄기운을 느끼고 싶으면서도 겨울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화자의 이중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0 X
- 08. '꿈같기에 설어라'라는 것에서 봄이 오는 것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읽을 수 있다. 0 X

시 구조

부분	내용 요약
1연	화자는 문을 열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
2연	우수절 초하루 아침을 맞이하였다.
3연	화자는 이마에 달을 듯이 먼 산을 가깝게 느끼고 있다.
4연	화자는 봄이 오는 자연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다.
5연	화자는 봄기운을 느끼며 자신의 감정에 주목하고 있다.
6연	화자는 봄의 생명력을 지닌 자연물을 바라보고 있다.
7연	화자는 겨울을 보내는 아쉬움과 봄이 오는 감정을 이중적으로 느끼고 있다.

작품의 특징

- ①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예) 섣뫼!, 아아)
- ✧ ② 감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 시이다.
- ✧ ③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예) 먼 산이 이마에 차라. 흰 웃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 ④ 이중적인 감정이 나타나 있다. (예) 햇웃 벗고 도로 춤고 싶어라.)
- ⑤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다. (예) 우수절(雨水節), 초하루 아침)
- ✧ ⑥ 특정 어미가 반복되어 나타나 있다. (예) 차라. 향기로워라. 설어라. 싶어라.)
- ⑦ 외부의 정경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다. (연계 교재)
- ⑧ 색채감이 나타난 시어를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연계 교재)
- ⑨ 시각적인 형상의 이미지를 촉각적 감각으로 전이시켜 표현하고 있다. (연계 교재)
- ⑩ 감탄형 서술어를 구사하여 풍경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계 교재)

작품 TMI

■ '춘설(春雪)'의 역할

'춘설(春雪)'은 사전적 의미로는 '봄철에 오는 눈'을 의미한다. '눈'은 겨울에 내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봄에 내리는 것은 이상하다. 그럼에도 '춘설'을 쓴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해당 작품에서 하는 '봄눈'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화자는 눈을 뜨고 세상에 눈이 내린 풍경을 맞이한다.
- ② <4연>부터 겨울에서 봄이 되는 계절 변화를 느끼고 있다. 즉, '봄눈'은 봄을 알리는 증거로 보인다.
- ③ <6연>에서 알 수 있듯이 봄눈을 맞은 자연물(새순, 물고기)이 생명력(파릇한, 입이 오물거리는)을 드러내고 있다.
- ④ <7연>에서 화자는 봄을 맞이하는 기쁨과 동시에 겨울이 가는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다.

■ <5연>의 '설어라'에 대한 해석

'설어라'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하나는 ① '꿈만 같아 서럽다.'는 해석이고, 또 다른 하나는 ② '꿈을 꾸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진다.'는 해석이다.

- ① 꿈만 같아 서럽다: 화자는 봄이 되고 지난겨울 겪었던 삶을 회고하니 자신의 과거가 슬프게 느껴졌다.
- ② 꿈을 꾸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진다: 화자는 봄이 되니 갑작스러운 변화에 새삼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이런 감정이 낯설게 느껴진다.

해석이 다를 때 어느 것을 무조건 정답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화자는 궁극적으로 봄이 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되, 반드시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접근하라.



내용 이해하기

문 열자 선뜻!

화자는 갑작스러운 추위에 깜짝 놀랐다.

먼 산이 이마에 차라.

- ① 공감각적 이미지(시각(먼 산)의 촉각화(차라))
- ② 눈 내린 먼 산의 시각적 이미지를 '차갑다'는 촉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였다.

「춘설(春雪)」이란 제목에서 이미 중요한 소재가 '봄눈'임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봄', '눈', 그리고 '겨울'이란 계절적 배경과 관련된 소재에 신경 써가며 해석하자.

〈1연〉에서 분석해야 하는 내용은 '화자가 문을 열고 찬 기운을 느꼈다'는 것이다. '시각'과 '촉각'이란 감각을 바탕으로 화자의 시선을 인지해야 하는 구절이다.

'이미지'를 강조하는 시일수록 '화자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자가 보고 느끼는 것'을 위주로 정리하여 전체적 맥락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우수절(雨水節) 들어

우수절: 입춘과 경칩 사이의 절기인 우수로, '봄비로 물기운이 가득한 때'라는 뜻임. 양력 2월 18일경.

바로 초하루 아침.

- ①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 ② 초하루: 매달 첫째 날.

〈2연〉에서 분석해야 하는 내용은 '시간적 배경'이다. '우수절'과 '초하루 아침'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자.

먼저 '우수절'부터 분석하자. 우수절은 '양력 2월 18일'이다. 봄이라고 하지만 아직 바깥 날씨는 춥다. '봄'에 대해 사상을 전개할 때, 어떤 사람은 '완전히 따뜻해진 봄'에 대해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꽃이 만개한 날'을 중심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를 쓴 작가는 '우수절'인 아직 봄이라고 이르기엔 추운 날을 배경으로 사상을 전개해 나갔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을 분석할 때, '봄이지만 아직 쌀쌀한 시기'임을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로, '초하루 아침'인데 '아침'은 '낮보다'는 쌀쌀하다. 그리고 매달 첫째 날이란 의미에서 '새로움'이란 의미지도 같이 분석하자.

이를 종합해 보면, 〈2연〉은 '봄, 새로움, 쌀쌀함'과 같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화자는 이전과 다른 느낌을 받고 있다.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화자는 이전과 다른 느낌을 받고 있다.

서늘옴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촉각적 이미지 이마받이하다: 이마로 부딪치다.

〈3연〉에서 분석해야 하는 내용은 〈1연〉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행동'이다. 〈1연〉에서 화자는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참고로 화자가 집 안에 있는지 집 밖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출제자 해석에 달린 것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지니자.)

〈3연〉도 마찬가지로 화자는 '산'을 바라보고 있다. 화자는 이 눈이 덮인 산을 바라보며 '새삼스럽다'고 느끼며 이마로 부딪칠 만큼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로 볼 때, 화자는 '봄에 내린 눈'에 대해 '새삼스러움, 새로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거리감을 느끼

고 있는 것 같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계절적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겨울 → 봄)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 ① 공감각적 이미지(시각(흰)의 후각화(향기롭다))
- ② 봄이 오는 상황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4연〉에서 분석해야 하는 내용은 '계절의 변화'와 '감각적 이미지'이다.

화자는 '얼음에 금이 가는 모습과 바람이 새로이 따르는 모습'을 보며 겨울이 지나고 점차 봄이 되고 있는 그 과정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런 변화를 다시 '색(=흰)과 '후각(=향기롭다)'을 활용하여 보여주었다.

웅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웅송그리고: 쫓거나 두려워 몸을 궁상맞게 몹시 움츠려 작게 하고.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 영탄적 표현(감탄사) ① 지난겨울을 회상하며 느끼는 서러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연계 교재)
② 봄이 되어 살아나는 생명들에 대한 화자의 낯설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연계 교재)

〈5연〉에서 분석해야 하는 내용은 '화자의 태도'와 '설어라'의 해석이다.

화자는 '웅송그리고'에서 알 수 있듯이 '겨울에 궁상맞게 움츠려 작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온 것 같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화자는 '꿈 같기에 설어라.'고 하는데, 이때 '설어라'가 애매하게 해석이 된다.

시의 전체 분위기를 고려하면 화자는 봄이 오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을 어디에 강조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므로, 학생 입장에서는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좋다.

① '설어라'를 '서러워라'로 해석하는 경우: 화자는 지난겨울을 보냈던 날을 회상하며 그 날이 꿈 같기에 서럽다고 느낀다.

② '설어라'를 '낯설다'로 해석하는 경우: 화자는 봄이 되어 되 살아나는 자연물을 느끼는 데 이 느낌을 낯설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다를 경우는 출제자 의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의 문맥을 고려하며 접근하길 바란다.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돌고

- ① 봄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이미지 ①

움짖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 ① 봄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이미지 ②
- ② 움짖 아니 기던: 움직이지 않던.

〈6연〉에서 분석해야 하는 내용은 '감각적 이미지'와 '봄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특히 감각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가 두드러져 나타나 있다. '파릇한'과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모습'에서는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고, '움직이지 않았던 물고기'가 '움직인다'는 말에서 동적 이미지도 확인된다.

출제자가 물어보는 층위에 따라서 해석하면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봄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정도만 해석해도 충분하다.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꽃 피기 전 칠 아닌 눈에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싫어라.

이중적 감정이 나타난 부분이다.

① 겨울을 보내는 아쉬움이 나타난다.

② 겨울옷을 벗고 봄기운을 느끼고 싶은 설렘(=기대감)이 나타난다.

<7연>에서 분석해야 하는 내용은 '봄눈'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것이다.

'햇옷'은 겨울에 입는 옷이다. 겨울옷을 벗었다는 의미는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봄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화자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 춥고 싫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이다.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 이중적 감정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어떤 감정을 지니고 있는가'는 다른 말이다.

화자는 겨울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춥고 싶다.'는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겨울을 보내는 화자의 아쉬움이 드러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전체적으로 봄이 오는 것에 대해 기대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므로 '봄이 오는 것에 대한 화자의 설렘이 드러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포인트를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구절은 출제자가 의도를 배치하여 학생을 이끌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자. '화자는 봄눈에 대해 긍정적이고, 지나가는 겨울에 대해 아쉬워한다.' 이 정도로 해석하고 문제에 임해도 되기 때문이다.



PART 1
현대시

01. 정지용, 「춘설(春雪)」

PART 2
고전시가

정답과 해설



작품 특징

신의 은총이자 신에게 경건하게 바치는 대상인 '눈물'에 대한 화자의 깊은 생각이 담긴 작품.

핵심 곡목!

- ① **주제:** 시련을 이겨내는 눈물 (순결함, 순수성)
- ② **화자의 상황과 정서:** 화자는 아들을 잃고 자신의 아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자 이 시를 썼다.
- ③ **특징**
 - ★ ①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예) 작은 생명)
 - ★ ② 대비되는 소재가 나타나 있다. (웃음 vs. 눈물)
 - ③ 관습적 인식과 달리 작가의 역설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연계 교재) (예)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④ 자연 현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깨달음을 제시하였다. (5연)
 - ⑤ 상징적 소재를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꽃, 열매)
- ④ **중요 소재:** 작은 생명/나의 전체/더욱 값진 것/나아종 지니인 것/열매/눈물(모두 '눈물'을 의미)

KEYWORD

눈물, 시련과 고난, 결실, 절대자, 깨달음

더러는
옥토(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흙도 티도,
금 가지 않은
나의 전체(全體)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제,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김현승, 「눈물」 -



Quiz!

정답과 해설 000P

- 01. 화자는 슬픔을 신의 섭리로 알고, 그것을 승화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태도를 보여준다. 0 X
- 02. 의도적으로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해 운율감을 살리고 있다. 0 X
- 03. '눈물'은 화자의 슬픔을 의미하는 것으로, 절대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다. 0 X
- 04. '웃음'은 '꽃'에 대응되는 대상으로 삶의 기쁨이 일시적일 뿐임을 보인다. 0 X
- 05. 경건한 경어체와 기원의 어조를 통해 절대자 앞에 겸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드러난다. 0 X
- 06. '눈물'은 '열매'에 대응되는 대상으로, 눈물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다. 0 X
- 07.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 화자의 자율적인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0 X
- 08. '흙도, 티도 금가지, 얇은'에서 눈물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0 X

시 구조

부분	내용 요약
1연	화자는 '눈물'이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2연	화자는 '눈물'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3연	화자는 눈물을 값진 것으로 여기며 절대자에게 바칠 수 있는 숭고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4연	화자는 눈물을 가장 나중에 지니는 것으로 보고 있다.
5연	화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든 것을 보며 '열매'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
6연	화자는 자신의 웃음과 비교하며 '눈물'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

작품의 특징

- ✧ ①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 작은 생명)
- ✧ ② 대비되는 소재가 나타나 있다. (웃음 vs. 눈물)
- ③ 관습적 인식과 달리 작가의 역설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연계 교재) (㉠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④ 자연 현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깨달음을 제시하였다. (5연)
- ⑤ 상징적 소재를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꽃, 열매)

작품 TMI

■ <5연>과 <6연>에 있는 중요 소재 정리

5연		6연	의미
꽃	=	웃음	'삶의 기쁨'을 의미한다.
↓		↓	
시든	=	아들의 죽음 (외적 정보)	'시련'을 의미한다.
↓		↓	
열매	=	눈물	'시련'을 통해 얻은 가치를 의미한다. (=신의 은총, 가장 값진 것)

■ 「눈물」과 관련된 이야기 모음

- (1) 이 작품은 김현승은 아끼던 어린 아들을 잃고 애통해하던 중 얻어진 시이기도 하다. 시인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을 신앙을 통해 승화시키고, 그 심정을 시로 나타냈다.
- (2) 김현승이 말하기를, “이 시의 기저에는 기독교 정신이 깔려 있다. 이 시는 내가 그렇게도 아끼던 나의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 애통해 하던 중 어느 날 문득 얻어진 시다. 나는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고 하였었고, 그러한 심정으로 이 시를 썼었다.”라고 하였다
〈김현승, 「김현승 시전집〉

■ 김현승이 생각하는 「눈물」

“그저 막연하게 대표작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쓴 것 중에서 작가 자신의 마음에 가장 드는 작품이 무엇이나고 자문자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범위 안에서 묻는다면, 나는 작품 중에서 그런대로 나의 마음에 드는 것은 눈물일 것 같다. (중략) 진지하고 열렬한 슬픔을 통하여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그 시 정신과 마지막 연의 표현들이 어딘가 내가 타고난 기질에 꼭 들어맞는 것 같다. 그것은 또한, 내가 길들인 기독교적인 인고의 성격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여도 나는 결코 탐욕스럽거나 화사한 인간은 아닌 것 같다. 그저 고스란히 인고의 걸음을 소가 받을 갈



듯이 걸어가야 할 것 같다.”

〈김현승, 『김현승 시전집』〉

■ 김현승과 「눈물」, 그리고 신앙

회의와 질문을 감추지 않고,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방황과 갈등을 겪던 김현승은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나서 깨어난 후 자신의 지난날을 참회하고, 신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신의 품으로 돌아간 그는 내면의 상처와 고통, 갈등과 방황을 녹이고 치유를 경험한다. 절대자와 재회하여 기쁨의 눈물을 보이게 된다. 그의 삶이 성경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 ‘요나’와 비슷한 형국이 된다. 김현승은 생애를 통해 진리를 추구했고, 그의 삶은 한편의 작품으로 보인다. 시인의 마지막으로 추정되는 작품에 ‘눈물’이 등장하고, 시는 한 편의 기도문이 된다. 지난날의 고뇌와 방황은 사라지고, 자신마저 비우면서, 신의 은총과 은혜를 온전히 체험한다. 초기 시 「눈물」처럼 자신과 절대자 사이에는 눈물만이 존재한다.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며 모든 것을 비우고, 시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눈물이다.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은 시인은 높은 수준의 양심을 지녔고, 진실하고 이상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세상에 바른 목소리를 내었다. 김현승은 세상이 신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을 눈물로 나타냈다. 희망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닌, 가까이에 있음을 시인은 말한다. 그것은 마음의 수양을 통해 우리의 맑은 눈을 가리지 않고 닦음으로, 마음을 온전하게 보존함으로써 희망은 드러나게 된다. 꿈꾸는 자는 희망이 되어 훗날 후대의 본보기가 된다. 진리를 찾는 것은 고독이 따르지만, 시련과 인내, 눈물을 통해 진리의 세계, 소망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 눈물은 이상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김현승, 「시에 나타난 눈물 이미지 연구」〉

내용 이해하기

더러는

‘-고저’는 ~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이다.

옥토(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 고저.....

옥토: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① 원관념: 눈물
영양분이 풍부한 좋은 땅. ② 타인을 위해 줄 아는 숭고한 마음이 담겨 있다.

「눈물」은 이미 중심 소재가 곧 제목이다. 이 모든 내용이 모두 ‘눈물’에 대한 것임을 확인하고 작품을 읽으면 화자가 말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찾기 수월하다.

<1연>부터 ‘작은 생명’의 원관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는데 바로 ‘눈물’임을 제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옥토’는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풍부한 좋은 땅을 의미한다. 이곳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 있는데 바로 ‘눈물’을 의미한다. 화자는 이를 두고 ‘작은 생명이 고저’하며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어떤 이유로 작은 생명이 고저 싶어 하는가. 화자는 왜 눈물이 되고 싶어 하는가.

흙도 티도, / 금 가지 않은

① 눈물의 특징이다.
② 더러움이 없는 순수한 대상을 의미한다.

‘눈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나의 전체(全體)는 오직 이뿐!

개개 또는 부분의 집합으로 구성된 것을 몰아서 하나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바로 그 대상.

<2연>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눈물’의 특징이다.

- ① 흙이 없고, 티도 없으며 금도 가지 않은 대상이다.
- ② 이것은 곧 화자의 전체를 의미한다.

①과 ②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완전체, 더러움이 없는 순결한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연>은 곧 <1연>보다 더 구체적으로 ‘눈물’의 특징을 제시한다고 보면 된다.

더욱 값진 것으로 / 드리라 하올 제,

화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경건한 자세로 이해할 수 있다.

<3연>에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더욱 값진 것’이 ‘눈물’이라는 것이고, 이를 절대자에게 드리고 싶을 정도로 가치가 높은 것이라 해석하면 된다.

나아중: ① 시적 허용
② ‘나중’이라는 의미이다.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

① 눈물을 의미한다.
② 화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4연>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시기’이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녔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해야 할 내용은 ‘눈물’이 지닌 특징이다.

- ①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 ② 흙도 티도 금 가지 않은 나의 전체
 - ③ 더욱 값진 것
 - ④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 모두 ‘눈물’을 표현한 구절이다.

① ‘꽃’은 ‘웃음’과 대응되는 소재이다. (꽃 = 웃음)
② ‘꽃’은 ‘열매’와 대비되는 소재이다. (꽃 vs. 열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 ① ‘당신’은 절대자 또는 신으로 해석하면 된다.
- ② ‘열매’는 ‘가장 나중’에 지닌 것과 같은 것으로 결실로 이해하면 된다.
- ③ 인내와 시련을 겪은 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5연>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6연>과의 대응되는 대상이 무엇인지이다.

절대자인 ‘당신’은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경험한 것을 보고 ‘열매’를 맺게 하였다고 말한다. ‘시들’은 ‘나무의 꽃’에게는 ‘시련’에 해당한다. 그런데 ‘당신’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새로운 열매’로 탈바꿈시켰다.

‘열매’는 바로 ‘시련’을 경험한 후의 결과,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하는 ‘결실’로 이해된다.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 ① ‘웃음’은 ‘꽃’과 대응되는 소재이다. (웃음 = 꽃)
- ② ‘웃음’은 ‘눈물’과 대비되는 소재이다. (웃음 vs. 눈물)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열매’와 대응되는 소재이다.
- ③ 시련을 겪은 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6연>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5연>과의 대응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중심 소재인 ‘눈물’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5연>의 핵심은 바로 ‘열매’를 맺게 한 절대자의 능력’이고, 이런 능력은 ‘나’에게도 발현된다. 그 증거가 바로 ‘눈물’이다. 화자가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눈물’이란 고귀한 가치를 얻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자. 나아가 무시제 표현을 통해 절대자의 행위의 지속성, 영원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연계 교재 관련)

(김현승 작가는 아끼던 어린 아이를 잃었다. 그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려는 노력을 읽어야 한다. 다만, 해당 작품은 외적 정보 없이도 충분히 화자가 힘든 일을 겪었음이 인지되므로, ‘눈물’과의 가치를 같이 연결하여 해석하기를 바란다.)



PART 1
현대시

02. 김현승, 「노물」

PART 2
고전시가

정답과 해설



작품 특징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한 작품. (살아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볼 것!)

핵심 곡목!

- ① **주제:** 일반적 희생이 아닌 주체적 자세의 중요성
- ② **화자의 상황과 정서:** 화자는 어머니에게 주체적으로 살을 살갓다며 의지를 밝히고 어머니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특징:**
 - ①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예) 애벌레/알, 나비/새, 누에고치/껍질, 외국어)
 - ②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예) 어머니, 나비여)
 - ③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예)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 ④ 경어체를 통해 자기 고백적이며 공손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하십시오체)
 - ⑤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⑥ 원작 소설을 모티브로 하였다는 증거가 시어로 나타나 있다. (예) 인당수, 공양미 삼백 석)
 - ⑦ 반복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3연)
 - ⑧ 표면화된 화자가 드러나 있다. (저, 우리)
 - ⑨ 기존의 통념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인당수는 없습니다.)
- ④ **중요 소재:** 인당수/공양미 삼백 석(심청전 모티브), 나비/새(화자가 되고 싶은 주체적 대상), 누에고치/껍질 (화자가 버려야 할 것), 외국어(주체적 삶의 의미), 스스로(주체성 강조)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어둡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나비여,
나비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그 대신 점자책을 사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지요.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은 것—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 김승희, 「배꼽을 위한 연가 5」 -



심청전, 인당수, 공양미 300석,
시와 책, 점자책

Quiz

정답과 해설 000P

- 01. '공양미 삼백 석' 등에서 고전의 소재를 활용하여 시상을 재구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0 X
- 02. 말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 X
- 03.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0 X
- 04.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한다고 말하는 것에서 화자가 가진 주체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0 X
- 05. '점자책을 사드리고'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주겠다는 것은 화자가 '어머니'에게 희생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기 때문이다. 0 X
- 06.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어머니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낸다. 0 X
- 07. '애벌레'와 '알'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아직 기존의 틀을 깨뜨리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0 X
- 08. '죄입니까?'라는 의문문을 통해 청자에게 자신이 궁금한 점을 묻고 있다. 0 X

시 구조

부분	내용 요약
1연	화자는 어머니께 살아서 시를 지으며 주체적으로 살겠다며 인당수에 빠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2연	어머니께서 평생 맹인이 되신다 하더라도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다.
3연	비유적 표현을 통해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죄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4연	어머니도 역시 주체적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5연	모두 각자 배우며 주체적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작품의 특징

- ①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예) 애벌레/알, 나비/새, 누에고치/껍질, 외국어)
- ②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예) 나비여)
- ③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예)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 ④ 경어체를 통해 자기 고백적이며 공손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하십시오체)
- ⑤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⑥ 원작 소설을 모티브로 하였다는 증거가 시어로 나타나 있다. (예) 인당수, 공양미 삼백 석)
- ⑦ 반복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3연)
- ⑧ 표면화된 화자가 드러나 있다. (저, 우리)
- ⑨ 기존의 통념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인당수는 없습니다.)

작품 TMI

■ 「배꼽을 위한 연가 5」의 ‘배꼽’의 의미

‘배꼽’은 ‘탯줄’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어머니와 자식 간의 혈육 관계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해당 작품의 어떤 부분과 연결해야 할까?

화자는 누군가의 종속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고, 각자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속적 관계가 아닌란 말’은 ‘평등한 관계’란 의미이다. 어머니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화자도 역시 어머니의 자식이다. 따라서 누구를 위해 희생하여 살지 않고 목숨을 소중히 여겨 ‘자신을 위해’ 사는 주체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모두가 평등한 존재임’을 ‘배꼽’을 통해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다.

■ 작가 ‘김승희’에 대하여

김승희는 1973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시 「그림속의 물」이 당선되어 문단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억압받는 여성성과 이 시대 여성들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풍자하고 냉혹한 비판의식으로 자신의 시에서 다룬 주제를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한 점이 주목된다. 특히 그는 시에서 여성의식의 변모의 과정을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는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문학적 소양과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김영춘, 김승희 시에 나타난 여성주체의 자각과 여성적 글쓰기〉

■ ‘김승희’와 존재론적 물음

김승희가 가부장적 억압의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시에서 보여준 것도 사실이지만, 보다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시적 사유는 인간존재의 본질에 깊숙이 파고들어 실존의 문제에까지 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김승희 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안, 분노, 위반, 죄의식, 고통, 죽음, 초월 등의 문제는 칼 야스퍼스 실존철학의 핵심개념인 인간존재의 ‘한계상황’을 환기한다. 또한 김승희의 존재론적 물음과 시적 지향성은 “인간 존재를 염려하고 인간 영혼의 해방과 구원, 그리고 안정을 추구했”던 야스퍼스의 철학적 사유와 밀접히 결부되어 나타난다. 이는 김승희 시가 ‘여성’으로서의 실존보다는 보편자로서의 실존 즉, ‘인간존재’로서의 실존을 탐구하고자 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지원, 김승희 시에 나타난 상징과 실존의 양상〉



내용 이해하기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 ① 『심청전』 모티브 ①
- ② 화자는 경여체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소설과 달리 '인당수에 빠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시를 짓는 태도'와 비교된다.

어머니,

- ① 청자
- ②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 ① 화자가 추구하는 삶 ①
- ② 시를 짓는 가치에 중요함이 부각된다.

〈1연〉을 확인하기 전에 스스로 『심청전』을 알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란다.

원작에서는 심청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직접 인당수에 빠진다. 그런데 이 시의 화자인 심청이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 '인당수에 빠질 수 없고, 시를 짓겠다'며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지 못하여

- ① 『심청전』 모티브 ②
- ② 원작에서는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과 바꾼 것이다.

당신이 평생을 어둡더라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인당수에 빠지는 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상징하며 그것을 거부하는 태도이다.

어머니, /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 ① 화자가 추구하는 삶 ②
- ② 책을 보겠다는 의지가 부각된다.

〈2연〉의 논리는 〈1연〉과 같다. 원작에서는 공양미 300석과 심청의 목숨을 바꾸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의 화자는 '당신이 눈을 뜨지 못해도 절대 인당수에 빠지지 않겠다.'며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해당 작품은 구체적 행동을 통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인데, 〈1연〉에서는 '시를 짓겠다'는 행동을 통해 보여 주었고, 〈2연〉에서는 '책을 보겠다'는 행동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나비여, / 나비여,

- ① 둔호법
- ② 청자, 말을 건네는 어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 ① 화자가 되고자 하는 대상 ①
- ② 비유적 표현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 죄입니까?

- ① 주체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부모를 떠나는 것을 의미 ①
- ② 설의적 표현(죄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 ① 화자가 되고자 하는 대상 ②
- ② 비유적 표현

껍질을 부수는 것이 / 죄일까요?

- ① 주체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부모를 떠나는 것을 의미 ②
- ② 설의적 표현(죄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3연〉은 비유법을 활용하여 인생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던 점이 중요하다. '나비'와 '알'은 모두 화자가 되고 싶은 대상이며, '누에고치'와 '껍질'은 화자가 목적을 위해 반드시 떠나야 하는 대상이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는 부모에 종속되어 있는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독립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하다. 그러기에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나 '껍질을 부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도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죄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그 대신 점자책을 사 드리겠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를 위해 가르침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어머니, /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지요.

어머니를 계몽하기 위한 수단

〈4연〉은 어머니도 주체적으로 살기 바라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눈이 멀었으니 내가 뜨게 해 드리겠다가 아니라 '점자책'을 읽는 법을 배워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갔으면 한다. 이때, 화자의 태도는 자식이 해 드릴 수 있는 도리이자 배려로 읽어야 한다.

왜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청자일까? 그것은 바로 여성의 억누르던 과거의 삶(어머니)을 벗어나고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당위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은 것—

- ① '외국어'는 각자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이다.
- ② '모국어'와 대비되는 시어이다.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 ① 타인에 의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② 문제 해결은 본인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5연〉은 앞에서 이미 말했던 내용의 반복이다. '외국어를 배우듯이 각자가 배워야 한다는 것'과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인당수는 어디에도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는 마지막 말에서 '주체적 삶의 의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된다. ('눈을 뜨다'는 맹인이 아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

추가로 '외국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와 모국어를 배울 때의 차이를 인지하면서 해석하면 된다. 외국어는 자기 힘으로 터득해야 하는 반면, 모국어는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점에서 '주체적 의지에 따른 것인가 아닌가'라는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같은 주제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지 않다. 학생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주체적 삶의 의지'와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에 있으므로 '3연'을 특히 유념하여 보도록 하자.